



클럽하우스에서 놀다



나는 오늘 하루 반나절을 클럽하우스에서 보냈다. 골프장에 있는 클럽하우스가 아니고 요즘 SNS의 신홍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오디오를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 어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 대표주자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글이나 사진, 영상이 아닌 오로지 목소리로만 소통하게 되어 있다. 올 2월 들어서 내가 이용하는 다른 SNS에서 '클럽하우스 초대 받았다', '클럽에서 유명인을 만났다'는 포스트들이 부쩍 눈에 띄었고 뭐길래 다들 난리인가 싶어서 얼른 검색을 해보았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 2020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두 개발자가 만들었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두 명이 운영하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어플이었다.

- 실리콘밸리 기업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다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 등이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한국에서도 젊은 유명 기업인들이나 연예인들이 나타났다. 기사 이후 급속도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 베타 버전으로 출시한 상태라 현재 아이폰 유저만 사용이 가능하고 어플의 사용자는 초대장을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 가입만 하면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다른 SNS와 다르게 반드시 초대장을 받아야 가입 가능하다 보니 끼리끼리 권력화, 자기들만의 잔치라며 비난도 받고 있다. 어쨌든 가입하고 싶다고 바로 가입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 초대장을 구걸하거나 돈 주고 사고파는 일도 있으며, 초대된 사람들은 자랑처럼 인증샷을 올리기도 한다.

- 모든 대화는 방에서만 이루어지고 방을 만든 모더레이터(사회자)를 중심으로 그 방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 옛날 채팅방의 방장 같은 느낌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 방에 모인 사람들은 스피커와 리스터로 나뉘고 리스

터가 손을 들어 요청하면 모더레이터가 스피커로 수락을 해줄 수도 있다.

- 시간 차가 있고 수정, 삭제 가능한 다른 소셜미디어와 다르게 말실수를 할 경우 난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인사들의 소셜미디어라는 기사 제목이 돌았었는데 그다지 인싸이지 못했던 나는 클럽하우스 초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초대 좀 해달라고 페이스북에 공개 포스팅이라도 올릴 참이었지만 혹시나 싶어서 남편에게 넌지시 "혹시 클럽하우스 알아?" 하고 물어봤다. 나를 얼리 어택터인 남편은 모르고 있었다. (앗! 남편의 문의 1회)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남편의 지인이 클럽하우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얼른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 "자기 친구 ○○○가 클럽하우스 한다고 포스팅했는데 친구한테 초대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 둘이 친하지 않아?" 남편은 친구가 워낙 유명인이고 인싸라 이미 두 장의 초대장을 다 사용했을 것 같으면서도 연락을 해본 모양이다. 그런데 인싸답게 이미 클럽하우스에 입성한 남편의 친구는 의외로 초대장이 한 장 남아있었고 고맙게도 남은 카드를 남편에게 써주었다. 그렇게 나도 클럽하우스에 입성!

2월 5일에 가입을 했지만 10분 이상 머물러 본 적이 없다가 오늘 작정을 하고 오랜 시간 사용을 해보니 해외 각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쉽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SNS 보다 뛰어났다. 나 이 상관없이 반말로만 진행되는 대화방도 있었는데 정말 모두가 계급장을 떼고 만나는 느낌이었다.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들의 방에 키우고 있는 고양이들이 곧 증성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추천해줄 병원이나 조인이 있다고 물었더니 1분 만에 딱딱 답이 나왔다. 친한 선배가 수술 잘하는 수의사라며 본인 이름을 말하면 잘 챙겨 주는 것은 물론이며 할인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순식간에 맺어지는 인맥이 신기하기만 했다. 그 외에 성대 모사 방, 노래 불러주는 방, 북한말 쓰는 방, 무조건 웃기는 방, 전문분야를 이야기하는 방, 책 읽어주는 방 등등 주제는 정말 다양하다.

어쩌면 요즘 같은 비대면 코로나19 시대에 이처럼 매력적인 SNS도 없지 않을까 싶다. 일단 얼굴을 보여야 한다거나 글이나 사진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다는 점이 엄청 매력적이다.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말만 해도 되고 내키지 않으면 듣고만 있어도 된다. 언제 어느 방에 썰렁이 나타날지 모르고 운이 좋으면 그들의 대화에 살짝 끼볼 수도 있다. 물론 어디서나 그렇듯이 이상한 사람, 잘난척하는 사람, 혼자만 말하려는 사람도 만나게 되지만 언제든 편하게 방을 드나들 수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

아무튼 지금 핫하게 떠오르는 클럽하우스가 반짝하고 떠올랐다가 금세 시들해질 오디오 서비스로 남을지 지금의 소셜미디어 판을 뒤집고 최강자 대열에 오를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새롭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나에게 뜻밖에도 추억을 소환하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방에 들어가 대화하는 구조는 그 옛날 천리안, 하이텔 채팅방과 상당히 유사하고 모르는 사람과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은 마치 폰팅을 떠오르게 한다. 그래서 별로 낯설지 않고 친숙한 느낌이다. 글 읽고 쓰는 것보다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클럽하우스의 문을 두들겨 보아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이 보이스 소셜 미디어라는 새로운 시도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매우 궁금하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 새집 분양, 엘바인 및 레이크포레스드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풀리톤 단층 하우스 방 3 화 3 1,562sf 대지 6,500sf \$550,000	요바린다 타운홈/콘도 방 3 화 3 2019년생 1,669sf 3층구조 \$730,000	부에나팍 단층 하우스 방 3, 화 2 1,505sf 대지 6,320sf \$690,000	풀리톤 타운홈/콘도 방 1 화 1 700sf \$290,000
풀리톤 단층 하우스 방 3 화 1 1,100sf 넓은 대지 6,100sf \$590,000	부에나팍 단층 하우스 방 3 화 2 1,540 sf 대지 6,000sf 완전 리모델링 한집 turn key \$690,000	요바린다 단층 하우스 방 2 화 2 1,056sf 대지 5,000sf 1984년생 \$540,000	부에나팍 단층 하우스 방 3 화 3 1,496sf 대지 5,150sf 한인 상권 가까운 곳 위치 \$590,000
풀리톤 단층 하우스 방 3 화 2 1,583sf 대지 6,000sf 은혜교회 아리랑마켓 가까운 곳 \$590,000	풀리톤 단층 하우스 방 3 화 2 1,537sf 넓은 대지 7,000sf 좋은 학교 \$610,000	풀리톤 단층 하우스 전체 리모델 방 5 화 2 1,665sf 대지 7,500sf 새 부엌, 새 appliances move in ready \$690,000	풀리톤 타운홈/콘도 방 2 화 3 1,362sf 완전 리모델링한집 트로이고등학교 도보거리 \$540,000
엘바인 타운홈/콘도 방 2 화 3 새 마루 새페인트 1,460sf West Irvine \$650,000	엘바인 콘도 2006년생 1,052sf 방 2 화 2 일층 위치 fully furnished \$520,000	엘바인 콘도 방 3 화 4 1,590sf 2020년생 포돌라 Brisa \$728,000	엘바인 타운홈 2002년생 방 3 화3 1868sf 낮은 HOA 게이트 단지 \$789,000
*부에나팍 새집 분양 3층 구조 *교통과 위치 좋은 곳 1. 방 2 화 2.5 1,250sf \$500,000 부터 2. 방 3 화 3 1,500sf \$550,000 부터	*브레아 새집 분양 3층 구조 2,253sf 방 3개 부터 방 5개까지 탁트인 오픈 플로워 플랜* 학교 좋은 지역 \$690,000~	*위티어 새집 분양 2층 또는 3층 방1~방4 구조 900sf 부터 1,950sf까지 최신 시설 커뮤니티 센터 (피트니스, 수영장 등등) \$290,000~	라미라다 시니어 단지 방 1,2,3 (55세 이상) 24시간 가드 상주 넓은 게이트 단지 한국 마켓 가까운 곳 위치 \$290,000~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귀하의 집을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명예부사장
Honorary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949.501.8555
Irvine: 8 Corporate Park #220